3.

2019학년도

인문계열 2회차 해설

[2회차 인문계열문항1] 제시문 요지

<가> 강경애, <인간문제>(1934), 창비, 2006, 136-137쪽, 158쪽 발췌 후 재구성

가을을 맞아 추수가 한창이지만 첫째와 그의 동료들은 한 해 내내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벼를 구경만하고 모두 지주인 덕호네 창고로 보내야 한다. 억울한 마음에 벼를 실어 내가는 덕호와 싸움을 벌인 첫째와 그의 동료들은 주재소에 잡혀가 고초를 치른다. 그곳에서 '법이란 것을 가르쳐야겠다'는 순사의 말을 듣고, 첫째는 무엇인가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갖게 된다. 법이 신성불가침이며 지켜야만 하는 것임을 알지만, 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이서방과 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이 자꾸 이 법이란 것에 걸리는가, 첫째는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된다.

<나> <판결문(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중 일부. 발췌 후 재구성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보편타당한 규범이다. 실정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맞도록 타당하게 해석될 것이 요구되는데, 이 때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그러한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해석이 허용된다면 국민은 법관이 자의적으로 재판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또한 모든 분쟁을 법원에 가져가 다퉈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법치주의의 기초 : 역사와 이념』, 김도균 최병조 최종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24-25쪽. 발췌 후 재구성

법의 지배, 즉 집행 이전에 확립되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공적인 법을 통한 통치는 법치주의의 이상이다.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요청은 법규범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건이자 법의 중요한 형식이다. 그러나 법치와 정당성 사이의 관계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의 집행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경우, 또 그 규율이 정의로운 규율체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두 경우 모두 법치를 통한 정의와 평등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법규범이 규정하는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하는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법치의 요청은 이것이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정의 및 법치의 목표는 아니다.

[2회차 인문계열문항1]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본 문항은 통치 체제의 이상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역설'을 주장하는 두 가지 제시문을 통하여 이해한 후,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문학 제시문을 구체적 사례로 적용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치주의란 무엇인가를 서술하도록 고안되었다.

민주정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이념으로 한다. 법치주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을 통하여 합법적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통치 권력이 법에 근거하도록 한다.

그런데 통치 권력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어 행사된다고 하여도 그 결과가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나 사회적 기본 가치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것이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 정의의 실현 등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이유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치주의가 법의 지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형식적 합법성보다는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한다.

본 문항은 '형식적 법치주의'가 갖는 한계와 '실질적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평등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치주의란 무엇인가를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하여 불평등과 부정의(不正義)가 초래되고 있는 <가>의 상황을 참고하여, '법적 안정성'을 주장하는 <나>와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역설'을 주장하는 <다>를 비교하여 서술하도록 요구한다. 나아가 이를 종합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치주의란 무엇인가를 논하도록 요구한다.

논제는 다음의 요구로 구성되어 있다.

① <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논지를 이해한다.

② <나>와 <다>의 논지를 비교 종합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란 무엇인가를 논한다.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가>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

② <나>와 <다>의 논지를 이해한다.

③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논지가 갖는 차이점을 비교한다.

④ <가> <나> <다>의 상황을 종합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하여 서술한다.

[2회차 인문계열문항1]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의 기본 요소

√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를 참고한 제시문 <나>와 <다>의 논지 파악】

① 제시문 <가>의 상황 이해
- 주인공 첫째는 소작농과 지주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를 억울하게 생각한다.
-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 법에 걸려드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여긴다.

② 제시문 <나>의 논지 파악
- 법 적용에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중요하다.
-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③ <다>의 논지 파악
- 집행 이전 확립되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의 통치는 법치주의의 이상이다.
- 형식적 정의 및 법치는 법의 중요한 형식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이것이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역설'이다.
- 법치의 요청은 궁극적으로 인간존엄성의 가치와 실질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 Key Word :
제시문 <가> 법에 의한 통치, 법 적용과 정의 실현, 실질적 불평등의 초래
제시문 <나> 법적 안정성, 보편타당성, 객관성과 일관성, 사회현실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해석 금지
제시문 <다> 법치주의의 이상, 법의 지배, 형식적 정의, 형식적 법치,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역설, 정의롭지 못한 결과의 반복적 초래, 정의롭지 못한 규율 체계, 실질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의 실현, 인간존엄성의 가치 실현, 실질적 법치주의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 비교, <가> <다> <다>의 종합】

④ 제시문 <가>를 적용한 제시문 <나>와 <다>의 비교
-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역설'이 각각 지니는 의미를 대조하면서 비교 분석한다.
- <가>의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어떤 경우 '형식적 법치주의'가 모순을 지니게 되는지 설명한다.

⑤ 제시문 <가> <나> <다>의 종합
- 법치주의는 실질적 평등과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은 중요하지만, 만약 법의 적용과 집행으로 인하여 부정의가 반복적으로 초래되거나 그 규율이 정의롭지 않은 경우라면,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회차 인문계열문항1] 모범답안 예시

법치주의는 통치 체제의 이상이자 핵심이다. <나>와 <다>는 각각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역설'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가>의 주인공 첫째는 애써 농사지은 것을 지주가 다 가져가 버리자 억울함을 느낀다. 동료들과 함께 이에 항의하여 보지만, 그의 행동은 법을 어기는 일이 될 뿐이다. 제시문 <나>는 법적 안정성을 주장한다. 법 적용에 있어 사건마다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의 주인공 첫째의 사정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여도 이것이 그에게만 일어나는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 불과하다면 법적 안정성을 후퇴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한편 제시문 <다>는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역설'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형식적 정의는 법의 중요한 형식이자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요청을 규율의 공평한 적용, 즉 형식적 법치주의로만 해석한다면 법적 정의는 구현될 수 없다. 나치 시대의 유대인 학살은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가 낳은 끔찍한 실례다. 법의 목적과 내용은 실질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때, 해당 법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특히 그들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낳는다면, 다시 말하면 법의 적용과 집행으로 인하여 불평등과 부정의가 반복적으로 초래된다면, 실질적 평등과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정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은 중요하지만, 만약 법의 적용과 집행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거나 정의롭고 평등한 규율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형식적 합법성보다는 실질적 정당성이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2회차 인문계열문항2] 제시문 요지

<가> : 신혜영, "1인 미디어 전성시대, 크리에이터가 뜬다", <시사매거진>, 2018.10.05.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552#09ne
구정화, 설동훈, 박윤경, 주은옥, 설규주,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2015, 192쪽 두 글을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가>는 1인 미디어 시대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대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한다. 유튜브는 전문적인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어 다양한 관심사를 담은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에 비해 유튜브는 양방향성과 상호작용성이 특징이 강하다.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1인 미디어 환경은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만의 정치적 관점에 맞는 콘텐츠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나> : 김유정 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의미와 활용",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수용자연구회 엮음,『소셜미디어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435~442쪽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나>는 SNS가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SNS에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상호관계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적 자본이 구축될 수 있다. SNS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응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개인들 간의 협동 활동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소셜커머스 형태로 나타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개인들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여론 형성이 가능함으로써 SNS 공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다> : 앤드루 킨, 박행웅 옮김,『구글, 유튜브, 위키피디아, 인터넷 원숭이들의 세상』, 한울, 2010, 69~71쪽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다>는 인터넷이 아마추어 저널리스트들이 활동 공간이 되고 있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권위 있는 언론기관의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비교해 볼 때 개인 블로그는 부정확한 정보와 상업성, 선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들조차 저널리스트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고, 증거와 논증이 없는 의견들이 자유롭게 분출되면서 아마추어 저널리즘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누구나 정치적 의견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에서 뉴스 왜곡의 가능성도 있어 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2회차 인문계열문항2]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본 문항은 전통적인 주류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인 유튜브 등 1인미디어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출제되었다. SNS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뉴미디어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각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타인과의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자본이 구축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각 개인들이 관심을 담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됨에 따라 선정적이거나 편파적인 아마추어 저널리즘이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즉 정확한 사실보도에 기반한 공신력이 있는 언론기관을 1인 미디어가 대체하면서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문항에서는 SNS 공간에서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희미해진 프로슈머 시대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마추어 비디어 포털인 유튜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고안되었다.

※ 논제 : <나>와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의 현상을 분석하시오.

본 논술 문항의 핵심은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전통적인 매체와 비교하여 1인 미디어 현상을 분석해 보는 데 있다. 제시문 <가>는 1인 미디어를 대표하는 유튜브 현상의 특징들을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도구로서의 소셜 미디어의 잠재적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다>는 인터넷에서 아마추어 저널리즘이 야기하는 신뢰성과 언론으로서의 권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나>와 <다>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가>의 현상을 가능성과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논제가 구성되었다. (이는 고교교육과정에서 대중매체 부분과 관련이 있는 내용임)

인문계열 문항2에서 제시된 논제는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을 정리하라
·제시문 <가>의 현상을 <나>와 <다>를 통해 분석하라

이 논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나>와 <다>의 주장과 논지를 찾고 두 글의 관점을 비교하기
둘째, <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셋째, <나>와 <다>의 논거를 활용하여 <가> 현상의 두 측면을 분석하기

[2회차 인문계열문항2]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의 기본 요소

· 답안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 체계가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 답안의 내용은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관점 비교】

· 두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각 제시문의 중요 논거를 정리하며 두 지문의 관점을 대조,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함)

① 제시문 <나>의 논지를 파악한다.
- SNS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시민참여의 민주주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한다.

② 제시문 <다>의 논지를 파악한다.
- 인터넷이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과는 달리 각 개인의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아마추어 저널리즘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다.

· 예시답안의 전반부 참조

· Key Word :
제시문<나> SNS, 사회적 자본, 신뢰감, 인적네트워크, 소셜 커머스, 직접민주주의, 여론
제시문<다> 인터넷, 아마추어 저널리스트, 블로거, 언론기관, 신뢰성, 음모론, 뉴스왜곡, 민주주의

【제시문<가>의 현상과 관련짓기】

· 제시문 <가>에서 언급된 현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앞의 내용과 관련짓는 능력 측정
· <나>와 <다> 두 글의 관점을 비교한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 <가>의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의 논리성과 설득력을 평가

③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속성상, 참여와 토론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가능성과 자신들의 정치적 관점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구독함으로써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④ 제시문 <가>의 현상을 제시문<나>와 <다>를 연결하여 서술한다.
- <나>와는 SNS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다>와는 인터넷 상에서 신뢰할 수 없는 개인 콘텐츠 유통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다.

⑤ <나>와 <다>의 논지를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의 현상을 균형감있게 해석하고 정리한다.

· 예시답안의 후반부 참조
· Key Word :
제시문<가> 1인미디어, 네트워크, 유튜브, 콘텐츠, 접근성, 양방향성, 상호작용성, 전자민주주의, 사이버공동체, 미디어환경, 정치적 관점

[2회차 인문계열문항2] 모범답안 예시

SNS는 개인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자본과 달리, 구성원 간의 사회적 신뢰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퍼트남이 말한 사회적 자본은 자발적인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교환되는 규범의식, 상호신뢰, 시민참여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전혀 모르는 타인이라고 할지라도 온라인상에서 상호 신뢰와 동질성으로 바탕으로, 각 개인들을 연결하여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현실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개방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소셜 미디어는 전통 미디어와 비교해 볼 때 상호작용성, 양방향성, 공유와 확산이 빠른 특징이 있다.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화된 힘을 모으는 것도 가능하다. 시사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단시간에 모이게 할 수 있고 온라인 토론이 가능함으로써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1인 미디어는 권위적인 권력집중구조에서 벗어나 권력 분산을 가져오고 개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유튜브 1인 방송은 전통적인 매체인 TV나 신문에 비해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 뉴스취재에서의 사실 확인, 편집과 교정 등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기관과 달리, 1인 미디어는 자격이 부족하고 훈련받지 못한 아마추어의 무책임한 콘텐츠를 유통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선정적인 주장이나 극단적인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짜 뉴스가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결론적으로 SNS는 단순한 인맥관리를 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개인들이 관심사를 표출하는 크리에이터들의 공간이 되고 있다. 1인 미디어가 수평적인 여론형성과 대중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공신력 없는 아마추어 저널리즘의 확산은 뉴스 쟁점에 대한 사실 확인이 결여되고 제작자의 편향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다.